

2025년 6월 14일(토)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 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 2 한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 3 온 천지 창조 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 4 그 온유 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 2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 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 3 번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 후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 담당

6/10(화)	6/11(수)	6/12(목)	6/13(금)	6/14(토)	6/16(월)
강협수 안수집사	조진권 재적안수집사	한상열 안수집사	김종진 안수집사	김두연 안수집사	이윤식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성숙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0장 다 함 께

기 도 김두연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4:12~16 인 도 자

찬 양 주를 봐요 새벽찬양대

설 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이성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300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12~16>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6월 14일(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대제사장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찰대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진단하며 예리한 말씀의 칼날로 저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매순간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안전한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세워 주신 새문안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힘써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과 함께 저희에게 주신 비전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제직들에게 날마다 강건함과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에 크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자리, 기쁨을 얻는 자리, 주의 뜻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른 대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굶주림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